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공사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4년 08월 26일



농어촌공 화안사업단 “쓰레기 줍고 환경 지켜요”

청렴플로깅... 부서 정책 홍보·환경보호활동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단장 전용주)은 지난 23일 사업단 인근에서 청렴플로깅 행사를 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ka up)과 영어단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 혹은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에 화안사업단 직원 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업단부터 고잔역 인근까지 버려진 담배꽂초, 쓰레기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으로 부서 청렴 정책을 대외에 홍보하는 동시에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ESG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또 사업단에선 청렴 표어를 활용해 청사에 ‘청렴 계단’을 조성, 일상에서 청렴을 생활화하고 시민에게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을 실천하고 있다.

전 단장은 “행동하는 청렴 시책 추진으로 갑질 없는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환경보전 및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양=윤현서기자

[기고] 기상이변 시대, 재난방재시설로서의 저수지 역할 강화가 필요



▲강화용진지사장 유승호

올여름은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역대 최다 빈도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변화와 기상이변이 빈번했다. 이제 매년 '띠장마', '송곳 폭우' 등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대기 현상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대조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나날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저수지가 특히 그렇다.

전국적으로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3,429개소 중 준공연도가 50년이 넘는 저수지는 무려 76.2%인 2,612개소이며, 강화지역의 경우 17개 저수지 중 4개소가 50년이 넘었다. 저수지 내구연한이 60~70년인 점을 감안하면 안전을 위한 저수지 보수·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폭우, 가뭄 등 커가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의 역할이 확대·강화 되고 있다. 공사는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올해 준설 예산을 3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 했다.

유역에서 발생한 토사의 유입으로 저수용량이 줄어든 저수지는 단기간 폭우로 늘어난 강우량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저수지 준설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올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해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저수지 개보수도 필요하다. 기존 저수지들은 단순히 농업용수의 담수 목적으로만 만들어져, 만수위 이상으로 수위가 도달하면 물넘이를 통해 자연월류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홍수조절능력이 전무하여 요즘과 같은 기습 폭우시에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3,429개소 저수지 중 단시간에 배수가 가능한 사전방류시설이 갖춰진 저수지는 18%인 610개소에 불과하며 강화지역의 경우 17개 중 24%인 4개소만 시설이 갖춰져 있다.

매년 100개 저수지에 방재시설 설치 예산(1개소당 약13억원)을 투입한다 해도 약 30여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한시라도 일찍 시작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저수지가 농업용수의 공급원 뿐만 아니라 재난방재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시설의 자동화, AI기반의 농업용수 관리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환경위기와 함께 늘어가는 과제 해결을 위한 저수지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할 때이다.

'녹조 생길라' 기지제 수변공원 수질개선...수초제거 작업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작업 실시



[전주=뉴스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위치한 기지제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 향상을 위한 수초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제공) 2024.08.23. photo@newsis.com [전주=뉴스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기지제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 향상을 위한 수초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주시와 체결한 '농업 기반 시설의 안정성 개선과 저수지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기지제는 도심 내 수변공원으로 부영양화와 토사 유입으로 수초와 수생식물의 과잉 번식으로 경관저해와 악취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이들은 올해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수초와 수생식물이 번성하면서 향후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초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제거 작업은 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저수지 수질 관리 등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이번 수초 제거를 통해 기지제의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 부안지사, 농지은행사업 특별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8회 한국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상담 부스를 운영해 특별 홍보를 실시했다.

부안지사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제8회 쌀전업농 전국대회에 참석한 농업인들과 지역민들에게 신규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을 홍보하면서 리플렛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안지사는 2024년 농지은행사업으로 맞춤형농지지원사업 244억원,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43억원, 과원규모화사업 2억원, 경영이양직불사업 14억원, 농지연금사업 14억원 및 2024년 신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4억원 등 총 317억원을 확보해 지역 농업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곡성경찰서 교통안전조끼 전달

[농어촌공사/손승 기자]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곡성경찰서(서장 정종두)는 23일 서장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가 참석하여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안전 형광조끼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활용하도록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형광 안전조끼 100개를 제작 지원한 것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交通安全교육 시 활용하기로 하였다,

정종두 서장은 "노인보행자 및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개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에 세종대팀

[김동현]

총 59개팀 중 수상자 9개팀 선정 30일 시상식



[세종=뉴시스]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제 2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세종대학교 팀이 제안한 '옥천에 웰(well) 이슈'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회는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찾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올해는 '농촌자원의 가치발굴'이란 주제로 6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1개 학교, 총 59개 팀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59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7일 서면심사를 통해 9개팀을 선정(아이디어 제안서 8팀, 논문 1팀)했으며 지난 22일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의 '옥천에 웰(well) 이슈'는 사찰음식, 한방스파, 숲길 걷기 등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촌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했다.

최우수상(2개팀)은 ▲서울대학교 '마을 빈집 세끼' ▲건국대학교 '폐교를 활용한 농촌 반려동물 훈련 캠프'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강원대학교 '농촌 마을호텔, 올리빌' ▲서울대학교 '뚜벅이어도 괜찮아, 뚜벅촌' ▲한양여자대학교 '스마트폰은 끄고 농촌에서 놀자' 등이 선정됐다.

우수 논문에는 한양대학교의 '농촌관광 상호작용의 정서 및 행동 효과 분석:사회교환이론 중심으로'가 뽑혔다. 대상 1개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200만원, 최우수상 2개팀은

농촌진흥청장상과 각 15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을 받은 6개 팀은 국립농업과학원장상, 한국농어촌공사장상, 한국관광학회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준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양재 에이티(aT) 센터에서 개최되는 창농 귀농 박람회 '에이(A)팜쇼'에서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촌을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찾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농촌관광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목적
농촌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촌지역 방문·교류 등 농촌관광 활성화로 찾고 머무는 농촌을 만드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응모자격
농촌관광에 관심있는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가능)
-개인 또는 공저(3인 이내) 형태로 참여 가능

공모주제
농촌자원의 가치 발굴로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
-농촌자원 가치 확산과 체류 확대를 위한 농촌관광 자원활용 및 홍보, 마케팅 방안
(웹진포털) (www.welchon.com) 공모요강 참조

일 정
-접수 : 6월 10일(월) ~ 7월 31일(수) 18:00까지
-1차(서류) 결과 발표 : 8월 12일(월)
-2차(발표) 평가 및 결과 발표 : 8월 20일(화) ~ 22일(목) 중
-시상식 : 8월 30일(금) ~ 9월 1일(일) 중
※ 장소 별도 공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응모방법
① 아이디어 제안 부문 (대학생, 대학원생 모두 참여 가능)
- 파워포인트(PPT) 형태로 자료 제출(20페이지 이내)
② 논문 부문 (저자는 대학원생만 가능, 지도교수 공동저자 가능)
- 논문의 형태로 자료 제출(5페이지 이내)
(웹진포털) (www.welchon.com)에 공지 및 접수

시상내역

구분	수량	아이디어 제안	대학원생 논문	상금
대상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200만 원
최우수상	2	농촌진흥청장상	농촌진흥청장상	각 150만 원
	2	국립농업과학원장상	국립농업과학원장상	각 100만 원
우수상	2	한국농어촌공사장상	한국농어촌공사장상	각 100만 원
	2	한국관광학회장상	한국관광학회장상	각 100만 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참가관련 한국관광학회 류시영 교수(원주 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메일 : tosok_ryu@daum.net / 연락처 : 033-760-1422
웹진포털 접수 시스템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연락처 : 1577-1417
데이터관련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이해영 연구원)
이메일 : mysh5066@korea.kr / 연락처 : 063-238-2636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주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학회



웹진포털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청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수첩] 국민들에게 농업용수 알리기

[조영규]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남는 농업용수를 생공용수(생활·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한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있다. 이 중엔 ‘물’이 주제인 곳이 꽤 있다. 기후위기엔 물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토론회에선 농업용수가 자주 등장한다. 골자는 농업용수의 다목적화. 농지면적이 갈수록 줄고 있으니 농업용수 쓰임도 줄어들테고, 그만큼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해석이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토론회장에서 농업용수가 주 업무가 아닌 이들의 생각을 반박하느라 시간을 할애하곤 했다.

혹시나 해서 지인들에게 ‘농업용수’의 이미지를 물었다. 단체 대화방에 물어보니 ‘낭비’가 가장 많았다.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양수기로 물을 논으로 퍼 올리는 모습 등이 떠오른다. 이를 이들은 ‘낭비’로 통 쳤다. 물론,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긴 했다. 불과 10명 내외에서 나온 답변이긴 해도, 농업용수를 낭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건 곱씹어 볼 대목이다.

이처럼 농업용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은 ‘농지면적이 줄어드니 농업용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그래서 줄어든 농업용수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공용수로 쓰자’는 논리에 설득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농업용수를 등한시 여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실제 농업용수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농업계의 전언이다. 농업용수 용수로는 대부분 개수로여서 누수가 많은데다, 농업용수는 위에서 흘러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는 논까지 농업용수를 보내려면 현행대로 물의 양을 유지해야 한

다. 논을 개간해 밭농업을 하는 곳도 있어 농업용수는 연중 필요해지고 있다.

이런 설명과 함께, 농업용수가 우리에게 주는 공익성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식량 생산은 물론, 지하수를 함양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대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다양한 공익성을 갖고 있다.

가을철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노란 벼들을 본다. 기차에 탔을 뿐인데,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벼 물결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농업용수, 농업용수를 활용한 농업인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이다. 농업용수의 부정적인 인식은 농업인들에겐 부담이다.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하나씩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농업용수의 중요성을 알게 됐을 때, 농업용수를 지키고,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올릴 수 있다. 그 방법을, 머리를 맞대어 찾아볼 때다.

농업부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호우 피해 복구비 단가 23% 인상..농기계·설비 신규 지원

[임현주]



붕괴된 비닐하우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농업 분야 피해 복구비 123개 항목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7월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최종 심의·의결돼 이번 피해부터 복구비 단가를 올리고 농기계와 시설하우스·축사 시설 설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호우로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천450ha, 농경지 유실 매몰 891ha,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ha,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천여 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곳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 분야 복구비는 929억 원으로 피해 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비가 585억 원이고, 공공시설 복구비가 344억 원입니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 원, 농약대 131억 원, 가축입식비 17억 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 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 원, 생계비 12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용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현주(mosqueen@mbc.co.kr)

송 장관 "추석 전 7월 호우피해 농가 지원금 지급"

[김연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농가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오는 9월 추석명절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행정안전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호우(지난달 8~19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총 9239억 원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농업분야 복구비는 929억 원이다. 이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이 585억원, 공공시설 복구비가 344억 원으로 책정됐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 원 ▲농약대 131억 원 ▲가축입식비 17억 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 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 원 ▲생계비 12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후 농업분야 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올해 피해부터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한다. 또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에 대한 신규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이율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국민의힘, 오늘 고위 당정 협의...추석 민생 종합 대책 논의

[정아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 종합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과 양곡·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수급 안정화 방안,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당정은 다음주 추석 대비 공급 안정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 전화 : 02-781-1234, 4444
- ▷ 이메일 : kbs1234@kbs.co.kr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아연 (niche@kbs.co.kr)

정부 재원 투입... '농사용 전기' 농가·한전 상생대안 찾아야

[양석훈]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적용범위 지나치게 좁게 규정

산업범주 확장 추세 반영못해

'태양광' 등 에너지전환 유도를



20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농사용 전기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농업과 한국전력공사 양쪽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농사용 전기제도에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등 상생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같은 의견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이원택·문대림·임미애 의원 등 여야가 공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주최했다.

◆문제는

=농사용 전기와 관련한 이슈는 크게 두가지다. '요금 수준'과 '적용 범위'다.

농가가 많이 쓰는 농사용 전기(을) 요금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70.1% 인상되면서 경영비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구상이 담긴 한전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농업계는 들끓고 있다. 요금이 더 오르면 지금도 빈손 농사로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 농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지난해초엔 전남 구례의 일부 농가가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됐다. 한전은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김치)을 보관하는 건 약관 위반이라고 봤다.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한 화훼농가가 화훼재배시설을 6차산업(관광)에 이용했다가 한 전으로부터 수억원대 위약금을 부과받은 일도 있었다. 두 사건은 모두 농사용 전기 적용 범위를 좁게 봤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농업범주가 확장하는 시대 흐름과 배치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래 한국첨단농업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스마트농업·6차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법과 제도는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6차산업 농가에 농사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은

=농업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으로 개편해 확장되는 농업영역에도 전기요금 혜택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흥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시장 개방 국면에서 대표적 피해분야인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이 농사용 전기 혜택을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전의 경영상태가 악화하면서 농가가 한전에만 기대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기에 정부 재원을 투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학준 한전 요금전략처장은 "한전의 적자가 2022·2023년 4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다만 농사용 전기 판매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정부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지원해준다면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억제와 적용 범위 확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농업계 관계자 역시 "핵심은 정부가 농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여부"라면서 "있다면 농가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50%까지는 농사용 전기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농사용 전기 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논의는 지속하되 농업계 자구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식 (주)기후에너지 대표 컨설턴트는 "다른 산업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자가 사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면서 "농업분야에도 자가 사용 태양광시설에 REC 가중치를 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급락한 한우·쌀값에 멎드는 농심...당정, 추석 앞두고 특단 대책 내놓나

[임하은]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추석민생대책 등 논의
공공비축 쌀 45만t 매입 이어 추가 매수 주목
축산농가 사료 구매융자금 상환 연장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쌀이 판매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에 4만4435원, 한가마 가격은 17만7740원으로 지난 해 10월 5일 20kg당 5만4388원, 가마당 21만7352원에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현재 가마당 쌀값은 10개월 전보다 약 4만원 낮은 금액이다. 2024.08.20.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당정이 최근 폭락한 한우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물가에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것도 문제지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한우 가격과 한 가마에 17만원 대까지 급락한 쌀값은 농심을 멎들게 한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쌀 추가 매수와 한우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을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25일 오후 2시께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더불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당정에서는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과 쌀 수확기 가격 대책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쌀 매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19일 올해 공공비축 쌀을 45만t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가운데 2023년산은 5만t, 2024년산은 40만t이다. 여기에는 가루쌀 4만t과 친환경쌀 1만t이 포함된다.



[익산=뉴스시스] 강경호 기자 = 20일 전북 익산시 춘포면의 한 논 위에서 트랙터가 논을 갈아엎고 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은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2024.08.20. lukekang@newsis.com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5일 기준 이달 산지쌀값은 20kg당 4만4435원으로 집계됐다. 한 가마(80kg)로 환산하면 17만7740원으로 17만원 대를 지속 중이다. 이달 초보다는 0.4%,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8.6% 감소한 수준이다. 약 4만원가량 떨어진 셈이다.

산지쌀값은 지난해 10월 수확기 때 가마당 21만7552원으로 시작해 9개월 만인 지난달 18만원 선이 붕괴했다. 작년 수확기 대비 이달 산지쌀값은 18.3% 하락했다.

지난달 20일 기준 민간 쌀 재고량은 51만1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만t(80.7%) 증가한 바 있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우와 관련해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도 거론될 거로 보인다. 내년부터 2조5000억원의 사료 구매 융자금 상환이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축산농가의 연장 요구 목소리가 높아 관련 지원책도 발표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한우 1kg 도매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1만6494원으로 전주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전달보다 289원 하락했다. 전년(1만7100원) 같은 기간보다는 606원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소비가 늘어남에도 사료값 인상과 한우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의 채산성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료값은 농가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농경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지원한 사료 구매 자금 융자금 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되면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쌀값 산지 동향을 점검하며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과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함께 노력해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뉴스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열린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2024.03.07. jhope@newsis.com

쌀 소비량, 올해 역대 최소 우려...공급 과잉에 가격 하락세

[배문숙]

대형마트 판매량 2~10% 감소...수급 불균형에 쌀값 하락

고위 당정협의회 대책 논의...농협은 소비 촉진 운동



19일 오전 전남 영광군 대마면의 한 논 앞에서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식문화 변화로 올해 쌀 소비량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쌀 공급은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은 쌀은 154.5g이다. 밥 한 공기를 짓는데 쌀 100g이 들어간다고 보면 국민 1인당 하루에 밥을 한 공기 반씩 먹은 셈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9년 59.2kg로, 처음으로 60kg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집밥'(집에서 먹는 밥)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각각 57.7kg, 56.9kg으로 계속 줄었다. 작년 1인당 쌀 소비량 56.4kg은 30년 전인 1993년(110.2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은 내년 1월께 발표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올해 쌀 소비가 작년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을 운영하는 다수 유통사의 집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쌀 판매량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많게는 10%, 적게는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판매량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쌀 소비량은 역대 최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쌀 소비 감소는 식생활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침밥을 안 먹는 등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고, 한 번에 먹는 밥의 양도 적어져 쌀 소비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소비자의 입맛은 면, 빵, 육류 등을 찾는 쪽으로 바뀌었다. 실제 지난 2022년 국민 1인당 3대 육류(돼지·소·닭고기) 소비량은 58.4kg로, 쌀(56.7kg)을 넘어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이 2028년 61.4kg으로 늘고 2033년에는 65.4kg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즉석밥 등 가공식품, 떡, 술을 만드는 데 쓰는 가공용 쌀은 늘고 있지만 전체 양이 집밥용 쌀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지금과 같은 쌀 소비 감소세를 상쇄하기는 어렵다.

올해도 쌀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산지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에서 재고 처리를 위해 쌀을 저가로 판매해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20kg에 4만4435원으로 열흘 만에 184원(0.4%) 하락했다. 한 가마(80kg) 가격은 17만7740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0kg당 5만4388원, 가마당 21만7352원에 각각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면치 못하면서 약 4만원(18%) 하락했다.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이 이어지자 농민단체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오는 27일 국회 앞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확기 대책을 예년보다 이른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배문숙 oskymoon@heraldcorp.com

[통일전망대]金正은의 광폭 수해 행보..문제는 식량?

[최유찬]



[뉴스데스크]

◀ 앵커 ▶

북한 압록강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식량 사정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서인지 북한의 요즘 보도를 보면 '민심 이반'을 걱정하는 모습이 들여다보입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 신의주 일대를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 달 전, 왼쪽과 비교하면 푸릇푸릇하던 농경지 상당수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농작물이 유실돼 진흙 바닥이 드러난 걸로 추정되는데 위화도 인근 경작지와 의주 비행장 주변 농지에서 넓게 식별됩니다.

[정성학/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물 빠진 다음에 진흙 맨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유실이 됐는데요. 이곳 논 농사는 이제 끝난 걸로 봐야 되고요."

의주와 용천, 피현 등 평안북도 4개 지역 위성사진을 종합하면 네 곳에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농경지는 3천 헥타르에 육박합니다.

서울 여의도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당장 곡물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옥수수과 쌀은 지난달보다 10%, 3~4월 춘궁기 때만큼 올랐습니다.

[김 혁/농어촌공사 선임연구원]

"벼가 이삭을 패는 이 시점에 침수가 되면 10%에서 20%까지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식량 생산 예측량이 줄어든 거다라는 민심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곡물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노동신문은 논벼 생육 상태를 잘 살펴 한 알의 낱알이라도 건져야 한다며 피해 지역 농민들을 다그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9차례나 수해 관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원 물자를 직접 나눠주고, 평양에 모인 아이들에게는 특식도 제공했는데 북한은 이걸 체제선전으로 포장합니다.

[조선중앙TV]

"원수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사회주의대가정의 부럼없는 행복상을 뜨겁게 새겨주는..."

수해지역 주민을 찾아간 자리에서 우리 언론 보도를 비판하고, 이걸 사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등 외부세계의 지원도 거부한 채 자력으로 버티겠다는 전략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들여다보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보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은 외부의 지원보다는 내부에서의 자원을 동원해서 해결하겠다."

최근엔 북한만 힘든 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연일 해외 재난 소식을 보도하며 주민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심어주려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최유찬(yuchan@mbc.co.kr) 영상편집: 이유승

폭염·홍수 등 기후변화, 정신건강에도 영향... “정부 정책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고려해야”

[이혜인]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 보고서가 나왔다. 일러스트.김상민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린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백주하·김혜윤)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이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며 관련 연구결과들을 소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정책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발표하면서 각국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소개된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폭염, 홍수, 태풍, 산불,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스트레스, 걱정, 우울,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자살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폭염은 사람들의 기분장애·불안과 관련이 있으며, 높은 기온으로 인한 불편함의 증가가 적대적인 감정과 신체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언론을 통해 관련 정보에 노출되거나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는 것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들은 좌절감, 분노, 무력감 같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과 정신적 영향도 만연해있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보고서에 소개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이 존재한다"며 "특히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여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정신건강 영향에 더 취약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의 정신건강 영향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방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위한 범부처 정책에 정신건강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신적 외상 외에도 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파생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포괄적으로 개입해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태풍 세력 약해졌지만..."가을에 강력 태풍 올 수도"

[김용원]



[앵커]

최근 지나간 태풍 '종다리'는 올해 처음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제주가 영향권에 들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도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강력한 태풍 북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달 발생한 제5호 태풍 '마리아'부터 8호 태풍 '우콩'까지 태풍 네 개는 모두 비슷한 경로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한반도에 더운 티베트 고기압, 그리고 일본 동쪽에 치우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태풍이 경계선인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이동 경로는 달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제주 해역과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 : 북태평양 고기압이 보다 예전에 동쪽에서 위축돼 있던 그런 가장자리가 조금 더 서쪽으로 확장해 옴에 따라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도 서쪽으로 확장 이동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첫 한반도로 북상했지만, 태풍 종다리는 세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태풍 기준인 초속 17미터 수준에 그쳤고, 제주 해상을 지나면서 풍

속이 더 떨어져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위도에서 발생했고 불과 하루 만에 육상에 상륙하면서 고수온 해역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에 더운 고기압 층이 버티고 있는 이른바 대기장이 형성되면서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바다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지 못한 겁니다.

태풍 종다리와 비슷한 위치에서 발생했던 2020년 태풍 '바비'가 대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우진규 / 기상청 통보관 : 남쪽 해상 고수온 해역에서 점차 발달하면서 북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대기 상부로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추가적인 발달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대기 조건이 달라지는 가을철에는 더욱 강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일주 / 제주대 태풍센터장 : 고위도에서 발생했고 대기장 조건도 안 좋아서 그렇지. 이제 가을이 되면 태풍의 길이 좀 더 열려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올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오면 높아진 수온 때문에 태풍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강력한 태풍이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한반도로 올라온 첫 태풍도 더위의 기세를 꺾지 못하면서, 당분간 제주는 열대야와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소기훈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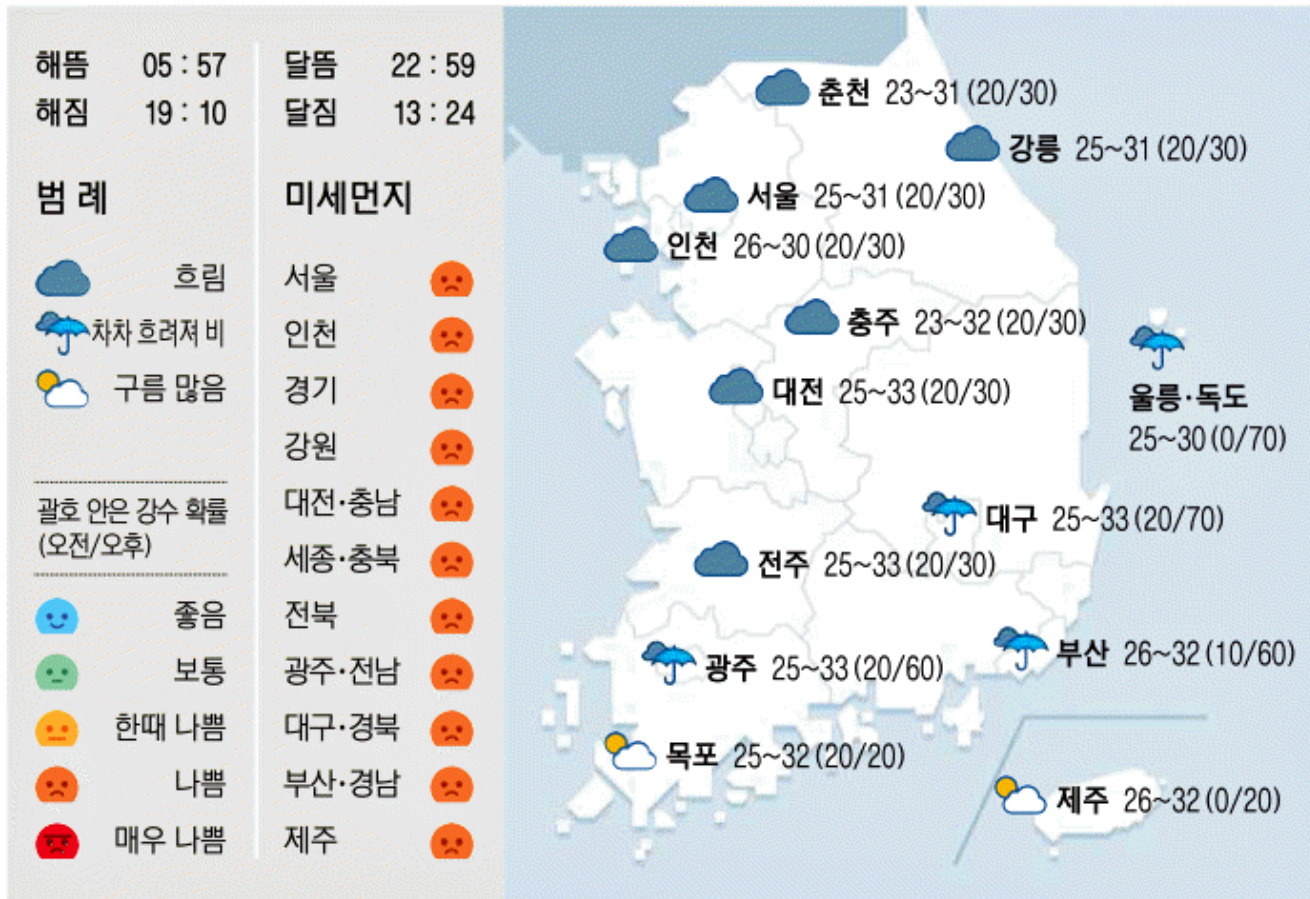
김용원 kctv(kimmj0225@ytn.co.kr)

오늘의 날씨

자세한 정보는 weather.mk.co.kr

26일 월

전국이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



세계날씨

지역	26(월)	27(화)
뉴욕	구름 조금 21~28	구름 조금 22~27
LA	맑음 16~22	맑음 16~22
베이징	흐리고 비 20~26	흐리고 비 17~20
도쿄	소나기 27~30	소나기 26~30
홍콩	구름 많음 28~32	소나기 28~32
방콕	구름 많음 27~32	흐리고 비 27~32
모스크바	맑음 16~27	맑음 15~28
런던	구름 조금 11~18	소나기 15~20
파리	맑음 13~19	맑음 12~21
로마	맑음 16~31	맑음 17~32
카이로	맑음 26~37	맑음 27~38
시드니	소나기 12~20	맑음 14~23
상파울루	구름 많음 11~15	소나기 10~14
싱가포르	흐리고 비 26~30	흐리고 비 26~29
토론토	맑음 16~28	맑음 16~29

오늘의 간조·만조

지역	간 조	만 조
부산	06:20/18:47	00:03/12:58
인천	03:05/15:19	08:55/21:40
울산	05:20/17:54	11:36/--:--
목포	11:47/--:--	06:42/19:32

지역별 주간 날씨

지역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1(일)
서울·경기	☁ 25/32	☁ 24/32	☀ 24/33	☁ 25/32	☁ 26/32	☁ 25/31
영동	☁ 25/29	☁ 24/31	☁ 24/31	☁ 23/32	☁ 24/31	☁ 24/31
충청	☁ 25/32	☁ 24/33	☁ 23/32	☁ 23/32	☁ 24/31	☁ 24/32
호남	☁ 25/32	☁ 24/33	☁ 23/33	☁ 23/32	☁ 23/32	☁ 24/33
영남	☁ 23/32	☁ 24/32	☀ 22/31	☀ 23/32	☁ 22/31	☀ 22/32
제주	☁ 26/31	☁ 26/31	☁ 25/31	☁ 25/32	☁ 26/31	☁ 26/32

지역	풍향	풍속	파도
서해중	북서~북	3~8% 3~8% 3~8%	0.5~0.5m
남해서	북동~동	4~7% 4~7% 4~7%	0.5~0.5m
동해남	북동~동	4~8% 4~8% 4~8%	0.5~1.0m

경향신문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021면 사람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안석환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인사과 박효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구정대 ▲ " 연금보건예산과 박민정 ▲ " 국방예산과 유동훈 ▲세제실 조세정책과 배현중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최연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김요균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성인영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김영민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성기웅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홍승균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류소운 ▲기획재정부 박지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팀장급 ▲마약류관리신속대응단 팀장 이규배 ▲국정홍보행정관 서현정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최재봉 ▲서울지방국세청장 정재수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재형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양동

훈 ▲광주지방국세청장 박광종 ▲대구지방국세청장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 ▲ " 정보화관리관 이성진 ▲ " 국제조세관리관 강성팔 ▲ "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 " 개인납세국장 이승수 ▲ " 법인납세국장 이동운 ▲ " 자산과세국장 김국현 ▲ " 조사국장 민주원 ▲ " 복지세정관리단장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김오영 ▲ " 조사1국장 양철호 ▲ " 조사2국장 심육기 ▲ " 조사3국장 박해영 ▲ " 국제거래조사국장 한창목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영준 ▲ " 조사1국장 유재준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이종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보안기술단장 박해룡 ◇팀장급 보임 ▲보이스피싱대응팀장 석지희 ▲보안교육운영팀장 안예나

■조선일보 ▲CS수도권팀장 정정신 ▲CS마케팅기획팀장 직무대행 문현식

경향신문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021면 사람

부고

■백현옥 전 인하대 미술교육과 교수(전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별세, 승수 현대자동차 책임매니저·승희 인천경연중 교사·승주 켄텔라조명연구소 대표 부친상, 채민석 서울주택도시공사부장·예종철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 장인상=24일 오후 11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낮 12

시 (02)3010-2000

■박희남씨 별세, 김재득 중부일보 서울정치부 부국장 장모상=25일 건국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10시30분 (02)2030-7900

■권길환씨 별세, 박하숙씨 남편상, 권규현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효정·효민씨 부친상, 오경희씨 시부상, 변창주씨 장인상=25일 한양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40분 (02)2290-9442